

일부 중·장년층의 구강위생용품 인지와 사용실태

정기옥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색인 : 구강위생용품, 인지, 사용실태

1. 서론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통계 연보¹⁾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 3위가 치주질환이고, 5위가 치아우식증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현황¹⁾에서 10대 질환 중 3개 항목이 치과 질환이었고, 급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6473억 6800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질환은 치아 상실의 주 요인으로 예방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치면세균막관리가 중요하다. 치면세균막은 치질내의 무기질을 탈회시켜 치아우식증을 발생시키고, 치면세균막 내의 일부 혐기성 세균을 포함한 치주질환 관련 세균들은 치주조직에 유해한 독소를 생성하여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치면세균막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효율적인 방법은 잇솔질을 이용한 방법으로 세정작용과 마사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²⁾.

하지만 치간 부위나 치은연하 부위에 존재하는 치면세균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반 잇솔질이 미치지 못하는 부위인 치간 부위의 청결과 치은 부위의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특수 잇솔과 각종 구강위생용품이 개발 소개되고³⁾, 이들 제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등⁴⁾도 잇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없고, 환자에 따라서는 질환의 종류에 따른 개인적으로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관리는 물론, 치간 청결이나 치은 마사지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등⁵⁾은 서울 시민의 가정구강의 건강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시민 99.3%가 매일 잇솔질을 하고 있으나,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박⁶⁾의 연구에 의하면 양치용액, 치실, 치간칫솔 이외의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좀 더 대

중적이고 효과적인 구강위생용품의 개발과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와 중요성을 여러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Linda와 Renee 등⁷⁾은 각 환자에게 적합한 구강위생용품 선정법을 소개한 바 있고, 김과 박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 병·의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보고한 김⁹⁾, 정¹⁰⁾, 채¹¹⁾의 연구뿐만 아니라, 송¹²⁾은 치과위생사의 보조구강환경관리용품 권장실태를 보고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¹³⁾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미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의 이환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들의 구강보건실태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일부 30~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인식과 사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이들의 구강보건 의식 증대 및 구강보건 행동을 습관화하여 구강보건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본 연구는 2009년 1월 2일~1월 31일까지 대구 북구·경북 칠곡의 30~50대 중장년층의 일부 주민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5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설문지 2부를 제외한 2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대상자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와 구강위생습관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와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와 구강위생용품의 사진을 이용,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4문항,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와 정기검진 유무 4문항, 구강위생습관 및 구강위생용품의 사용행태 11문항, 구강위생용품에 관한 인지 및 현재 사용 여부를 묻는 1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인지와 사용실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구강건강상태와 관리, 주된 치료내용, 구강위생습관에 따른 인지와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 12.0 ver을 사용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는 남자 50.6%, 여자 49.4%이고, 이들의 연령은 30~39세가 46.4%, 40~49세가 30.0%, 50~59세가 23.6%였고, 대졸 이상이 50.2%를 차지하였다. 월 급여는 100~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Table 1).

3.2. 구강위생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대상자는 치간칫솔, 양치용액, 치실 순으로 구강위생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치용액, 치간칫솔, 치실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General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33	50.6
Female	130	49.4
Age(year)		
30~39	122	46.4
40~49	79	30.0
50~59	62	23.6
Grand		
Below high school	131	49.8
Above university	132	50.2
Earning(Million won)		
<100	63	24.0
100~200	99	37.6
200~300	62	23.6
300≤	39	14.8
Total	263	100.0

Table 2. Awareness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

N(%)

	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Un-know(%)	Use(%)	Un-use(%)
Interdental-brush	116(44.1)	147(55.9)	40(15.2)	223(84.8)
Dental floss	132(50.2)	131(49.8)	27(10.3)	236(89.7)
Super floss	12(4.6)	251(95.4)	3(1.1)	260(98.9)
Threader	33(12.5)	230(87.5)	3(1.1)	260(98.9)
Water pik	67(25.5)	196(74.5)	3(1.1)	260(98.9)
Gargle	142(54.0)	121(46.0)	41(15.6)	222(84.8)
End tuft brush	18(6.8)	245(93.2)		263(100.0)
Automatic brush	183(69.6)	80(30.4)	22(8.4)	241(91.6)
Rubber tip	3(1.1)	260(98.9)		263(100.0)
Perio brush		263(100.0)		263(100.0)
Prosthetic brush		263(100.0)		263(100.0)
Orthodontic brush	6(2.3)	257(97.7)		263(100.0)
Denture brush	3(1.1)	260(98.9)	3(1.1)	260(98.9)
Denture cleaner	6(2.3)	257(97.7)		263(100.0)
Tongue cleaner	74(28.1)	189(71.9)	18(6.8)	245(93.2)

Table 3. The motivation of use or un-use of oral hygiene device

N(%)

	N(%)
Use motivation [§]	
Encouragement by dentist	34(64.2)
Inspired from people	10(18.9)
Encouragement by people	3(5.7)
Advertising	3(5.7)
My self	3(5.7)
Un-use motivation ^{§§}	
Don't know how to use	73(34.8)
Unnecessary	58(27.6)
Bothersome	36(17.1)
Uncomfortable to use	14(6.7)
Expensive	13(6.2)
Etc	16(7.6)

[§] 구강위생용품 사용자만 응답

^{§§} 구강위생용품 미사용자만 응답

3.3. 구강위생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동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응답자 중 64.2%가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가 권해서 용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18.9%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34.8%가 용품에 대해 몰라서, 27.6%가 필요를 못 느껴서, 17.1%가 귀찮아서라고 응답하였다(Table 3).

3.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인지와 사용실태

남자 57.1%에서 구강위생용품을 알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37), 고졸 이하 50.4%, 대졸 이상 52.3%로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알고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많이 하였다(Table 4).

3.5. 구강건강상태와 관리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본인이 생각하는 구강건강상태 중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5.5%, 보통이다 47.2%, 건강하다 48.6%가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였고, 최근 치과방문시기 1~6개월 이내인 경우에서 77.5%로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4). 정기검진을 하는 그룹이 82.4%로 하지 않는 그룹 43.9%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86.1%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치과방문시기가 짧을수록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하였다. 정기검진을 하는 그룹에서 47.1%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였다(p=0.000)(Table 5).

Table 4. Awareness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 for General character N(%)

	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Un-know(%)	p-value	Use(%)	Un-use(%)	p-value
Gender						
Male	76(57.1)	57(45.4)	0.037*	31(23.3)	102(76.7)	0.128
Female	59(42.9)	71(54.6)		22(16.9)	108(83.1)	
Age(year)						
30~39	61(50.0)	61(50.0)	0.816	21(17.2)	101(82.8)	0.389
40~49	40(50.6)	39(49.4)		16(20.3)	63(79.7)	
50~59	34(54.8)	28(45.2)		16(25.8)	46(74.2)	
Scholarship						
Below high school	66(50.4)	65(49.6)	0.427	28(21.4)	103(78.6)	0.368
Above university	69(52.3)	63(47.7)		25(18.9)	107(81.6)	
Earning(Million-won)						
< 100	34(54.0)	29(46.0)	0.000	12(19.0)	51(81.0)	0.481
100~200	38(38.4)	61(61.6)		16(16.2)	83(83.8)	
200~300	47(75.8)	15(24.2)		16(25.8)	46(74.2)	
300≤	16(41.0)	23(59.0)		9(23.1)	30(76.9)	
Total	135(51.3)	128(48.7)		53(20.2)	210(79.8)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5. Awareness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 for oral health condition and management N(%)

	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Un-know(%)	p-value	Use(%)	Un-use(%)	p-value
Oral health condition						
Poor	66(55.5)	53(44.5)	0.469	22(18.5)	97(81.5)	0.061
Moderate	34(47.2)	38(52.8)		21(29.2)	51(70.8)	
Good	35(48.6)	37(51.4)		10(13.9)	62(86.1)	
Treatment-time(month)						
1~6	31(77.5)	9(22.5)	0.004*	13(32.5)	27(67.5)	0.058
6~12	26(46.4)	30(53.6)		13(23.2)	43(76.8)	
12≤	53(48.2)	57(51.8)		21(19.1)	89(80.9)	
I don't know	25(43.9)	32(56.1)		6(10.5)	51(89.5)	
Period exam presence						
Do	42(82.4)	9(17.6)	0.000	24(47.1)	27(52.9)	0.000
Do not	93(43.9)	119(56.1)		29(13.7)	183(86.3)	
Total	135(51.3)	128(48.7)		53(20.2)	210(79.8)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6. Awareness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 according to dental trea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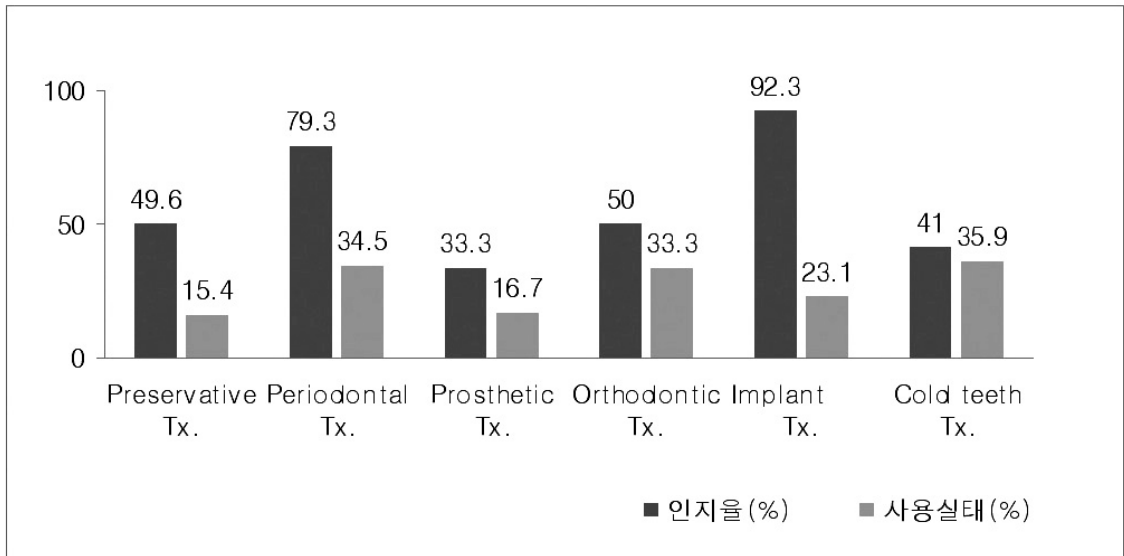


Table 7. Awareness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 according oral hygiene habit N(%)

	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Un-know(%)	p-value	Use(%)	Un-use(%)	p-value
Frequency of tooth brushing(/day)						
1~2	67(46.9)	76(53.1)	0.079	27(18.9)	116(81.1)	0.854
3~4	46(52.3)	42(47.7)		19(21.6)	69(78.4)	
5≤	22(68.8)	10(31.3)		7(21.9)	25(78.1)	
Education experience of tooth brushing						
Yes	66(60.0)	44(40.0)	0.012*	40(30.3)	92(69.7)	0.000
No	69(45.1)	84(54.9)		13(9.9)	118(90.1)	
Change your tooth brushing after oral disease diagnosis						
Yes	66(60.0)	44(40.0)	0.012*	29(26.4)	81(73.6)	0.025*
No	69(45.1)	84(54.9)		24(15.7)	129(84.3)	
Total	135(51.3)	128(48.7)		53(20.2)	210(79.8)	

*p<0.05 by chi-square test

3.6. 주된 치료내용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임플란트, 치주, 교정, 충치/신경치료를 경험한 순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린이 치료, 치주치료, 교정치료, 임플란트를 경험한 순으로 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Table 6).

3.7. 구강위생습관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잇솔질은 하루에 5회 이상한다고 응답한 68.8%가 구강위생용품을 알고 있었고, 잇솔질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 응답자 중 60.0%가 인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2), 구강질환 진단 후

잇솔질 방법에 변화가 있는 경우의 60.0%가 인지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2$). 잇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많이 하였고, 잇솔질을 배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30.3%가 구강 위생 용품을 사용하였으며($p=0.000$), 구강질환 진단 후 잇솔질 방법 변화가 있는 그룹의 26.4%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5$)(Table 7).

4. 총괄 및 고안

삶의 여유와 개인적 가치에 대한 자각은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인간의 건강증진 욕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의료 보건 분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국민의 보건 의식 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다¹⁴. 그러나 여전히 양대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발생률은 높아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치면세균막 형성은 양대 구강병 발생에 핵의 역할을 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치면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잇솔질과 세치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잇솔질과 세치제가 치면세균막을 관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효과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구강구조상 잇솔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¹⁶, 각 개인에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을 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관리는 물론 치간 청결과 치은 마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¹⁵.

현재 국내에는 약 200여 종의 잇솔과 40여 종의 세치제 그리고 10여 종의 구강위생용품이 시판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연령과 구강상태 등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잇솔과 세치제 및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³.

따라서 스스로가 구강질환이나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구강건강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저자는 주로 만성질환인 치과 진료의 특성상 30~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상태 및 관리, 구강위생습관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와 사용실태를 분석·검토하였다.

응답자 중 남자는 50.6%, 여자는 49.4%로 남자가 약간 더 많았고, 연령은 30대가 46.4%, 40대가 30.0%, 50대가 23.6%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0.2%, 고졸 이하보다 조금 많았는데, 연령분포가 30대가 많아서인 것 같다. 월 급여는 100~200만 원 미만이 37.6%였다.

구강위생용품 중 전동칫솔 69.6%, 양치용액 54.0%, 치실 50.2%, 치간칫솔 44.1% 등의 순으로, 이는 일부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김의 연구¹⁵에서의 양치용액 83.2%, 치실 55.2%, 치간칫솔 37.6%, 혀클리너 33.9%를 인지하고 있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를 보면, 양치용액 15.6%, 치간칫솔 15.2%, 치실 10.3%, 혀클리너 6.8%로 나타나 양치용액과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양치용액이 음식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어 사용률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김¹³은 양치용액 29.1%, 치실 11.3%, 혀클리너 8.6% 순이었고, 서 등¹³은 양치용액 17.2%, 치실 2.5%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S대학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 등¹⁵의 연구에서는 치간칫솔 20.9%, 전동칫솔 8.6%, 혀클리너 7.5%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가 권해서 64.2%,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18.9%로 나타나, 이는 1992년에 보고한 김 등¹⁹과 서 등¹³의 연구 치과에서 권해서 47.8%보다는 높았고, 정¹⁰의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권유에 의해 73.2%보다는 낮았다. 이는

치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교육으로 인해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용품에 대해 몰라서 34.8%, 필요성을 못느껴서 27.6%, 귀찮아서 17.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정¹⁰⁾의 연구용품에 대해 몰라서 70.2%, 서 등¹³⁾의 연구 45.5%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구강위생용품을 잘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전체 응답자 중 구강위생용품을 51.3%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치과 병·의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채¹¹⁾의 연구에서는 68.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아무래도 현재 진료 중인 상태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 같다. 또한 응답자의 20.2%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 등¹³⁾의 연구 40.5%보다는 낮고, 박 등¹⁷⁾의 연구 16.1%보다는 높았으나 여전히 인지율과 사용률은 전체적으로 낮았다. 이는 전문가인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홍보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와 사용실태로 보면 남자 57.1%가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있어 여자 42.9%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채¹¹⁾의 연구에서 남자 57.7%가 알고 있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학력이 고졸 이하 50.4%, 대졸 이상 52.3%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알고 있어 채¹⁰⁾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남자 23.3%, 여자 16.9%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채¹¹⁾의 연구 남자 36.5%, 여자 50.3%보다 낮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대상자 본인이 생각하는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55.5%, 보통이다

47.2%, 건강하다 48.6%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구강위생용품을 더 많이 인지하였고, 이는 이와 김¹⁸⁾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최근 치과방문시기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인지를 보면 1~6개월 미만 77.5%, 6~12개월 미만 46.4%, 12개월 이상 48.2%로 나타나 최근 치과방문시기가 짧을수록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정기검진을 하는 경우 82.4%가 구강위생용품을 안다고 응답하였고, 정기검진을 하지 않는 43.9%가 용품을 인지하여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할수록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을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건강하지 못하다 18.5%, 보통이다 29.2%, 건강하다 13.9%로 자신이 느끼는 구강건강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하여 정¹⁰⁾의 연구 치아 건강에 대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가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최근 치과방문시기가 짧을수록 사용률 또한 높아 이는 이와 김¹⁸⁾ 연구와 일치하였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정기검진을 하는 47.1%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치과 병·의원의 계속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는 임플란트(치아매식술)를 한 경우 92.3%, 치주환자 79.3%, 교정환자 50.0%, 충치/신경치료 49.6% 순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였고, 이와 김¹⁸⁾의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치아매식술) 89.3%, 교정환자 76.5%, 스케일링 69.0%, 충치/신경치료 67.9%, 치주질환 65.8%로 본 연구의 인지율이 다소 낮았다.

잇솔질은 하루에 1~2회 46.9%, 3~4회 52.3%, 5회 이상 68.8%로 횟수가 증가할수록 인지도도 높아졌는데, 이는 이와 김¹⁸⁾의 연구 3~4회에서 67.7%로 가장 많이 인지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잇솔질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 60.0%가

인지하고 있고, 또한 구강질환 진단 후 잇솔질 방법의 변화가 있는 응답자 중 60.0%가 인지하였다. 치과 의료기관에서 잇솔질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다. 잇솔질을 하루에 5회 이상 하는 경우 21.9%가 용품을 사용하였고, 잇솔질 방법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 30.3%가 사용하였다. 구강질환 진단 후 잇솔질 방법이 변한 경우 26.4%가 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이와 김¹⁸⁾의 연구 잇솔질 횟수 3~4회 59.8%, 잇솔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중 58.1%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다.

총괄적으로 보아 대구·경북지역의 중장년층의 구강위생용품의 인지와 사용실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의 인지와 사용을 위해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와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표본 수집의 범위가 적어 모든 중장년층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용이 일부 진료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에는 진료내용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인지와 사용실태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치과 전문의를 비롯한 치위생사들의 구강위생용품의 홍보와 각 대상에 알맞은 맞춤형의 실질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1월 2일~1월 31일까지 대구·경북지역의 30~50대의 지역 주민 263명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 구강위생습관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와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1. 응답자는 전동칫솔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양치용액, 치실 순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치용액, 치간칫솔, 치실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2. 남자 57.1%가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p < 0.037$),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하였다.
3. 본인이 생각하는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55.5%가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였고, 최근 치과방문시기 1~6개월 이내인 77.5% 인지하고 있었다($p < 0.004$). 정기검진을 하는 사람 82.4%가 인지하고 있었다.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86.1%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치과방문시기가 짧을수록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하였고, 정기검진을 하는 그룹에서 47.1%가 용품을 사용하였다.
4. 임플란트, 치주, 교정, 충치/신경치료를 경험한 순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린 이 치료, 치주, 임플란트, 충치/신경치료를 경험한 순으로 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5. 잇솔질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 응답자 중 60.0%가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2$), 구강질환 진단 후 잇솔질 방법에 변화가 있는 경우의 60.0%가 인지하였다($p < 0.012$). 잇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많이 하였고, 구강질환 진단 후 잇솔질 방법에 변화가 있는 그룹의 26.4%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였다($p < 0.025$).

30~50대의 중장년층의 구강위생용품에 관한 인지도와 사용실태는 대체로 낮았으며, 잇솔질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 응답자가 사용률 또한 높아 치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권장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건강보험공단. 2007년 건강보험통계 연보. 서울:2008.
2. 김종배, 최유진, 백대일, 신승철. 예방치학. 서울:고문사;1996.
3. 문미영. 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지식과 구강위생용품 교육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3인. 공중구강보건학. 서울:고문사;2003:12-14.
5. 이영혜,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서울특별시 가정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24(3):239-257.
6. 박홍련. D중공업 근로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치위생과학회지 2006;6(2):93-99.
7. Linda S. Renee J.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3rd. Appleton & Lange 1995: 107-162.
8. 김선주, 박인숙. 대학생의 보조구강위생용품 활용도 조사연구. 치과연구사 2004;56(5):87-97.
9. 김수경.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2;2(2):95-103.
10. 정명옥. 치과병원 내원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실태.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채말선. 치과병·의원 내원환자들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분석.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송혜정. 치과위생사의 보조구강환경관리용품 권장실태.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3. 서은주, 신승철, 서현석, 김은주, 장연수.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2):177-192.
14. 전경미. 일부지역 사무직 근로자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따른 구강보건관리 행태.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5. 김명은. 일부 서비스 종사자들의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3):37-52.
16. 양수정, 문혁수, 김종배. 잇솔질 및 헹글질의 구취감소효과에 관한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2): 268-278.
17. 박현경, 김진수, 최부근. S대학에 내원한 환자의 구강관리 실태. 치위생과학회지 2006;6(2): 127-131.
18. 이형숙, 김영선.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건강관리 및 진료 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비교.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 8(3):149-160.
19.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진보형, 송연희.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2;16(2):493-504.

Abstract

A survey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 and awareness some of the middle age people

Gi-Ok Jung

Dep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Key words : awareness, oral hygiene device, use

Objectives : This study had been performed for Respondents who live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 Age group of 30 to 50 years old.

Methods : The oral health state and oral health care, dental treatments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were obtained through self-administering questionnaires from 2 to 31, January, 2009.

Results :

1. The toothpick was well known for respondents and automatic brush, gargle, dental floss were practically used.
2. 57.1% of man know oral hygiene device, they know more about oral hygiene device if they have higher degree, and they use more if they are older than others.
3. 55.5% of respondents who think their oral health condition is not healthy enough recognize oral hygiene device, 77.5% of respond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 around six month recognize oral hygiene device. 82.4% of respondents who had been follow- up. 86.1% of respondents who think their oral health state is good enough doesn't use oral hygiene device, oral hygiene device was used more for respond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 frequently. 47.1% of respond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 periodically use oral hygiene device.
4. Respondents who experience implant recognize more about oral hygiene device and periodontal Tx, orthodontics problem, preservative treatment were next.
5. 60.0% of respondents who were educated tooth brushing method recognize it. Oral hygiene device was frequently used if tooth brushing time were increased. 26.4% of respondents who were changed their tooth brushing method used oral hygiene device.

Conclusions : Their recognition level was practically low whose age is around 30 to 50. Their oral hygiene device use ratio is higher than others who were educated tooth brush method so that I think we need to recommend for use oral hygiene device and use method.

접수일-2009. 08. 14 수정일-2009. 09. 24 게재확정일-2009. 10. 28

